



3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제일 큰 덕목은 품격"

전주매일

2021년 9월 8일 수요일 (음 8월 2일) 제285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조지훈 전 경진위원장, 전주시장 출마 선언 “모두가 누리는 전주 플랫폼 도시로 전환”

15분 도시·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 등 공약 제시

조지훈 전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이 전주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22년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할 예비 후보 중 첫 번째 공식 선언이다.

조지훈 전 원장은 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속 시원한 경제시장이 되고자 전주시장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전주를 구석구석 가장 잘 아는 전주사람으로서 그 누구보다 시민과 오랫동안 호흡하고 전주의 발전 방향을 고민해 온 끝에 전주를 잘 나가는 도시, “모두가 누리는 도시”로 일구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준비를 공을 들인 듯 구체적인 공약도 발표했다. 조 전 원장은 전주 발전을 위한 해법으로 ▲15분 도시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필진어 프로젝트 ▲1만 명의 청년실업자·1천 개 리빙랩·100개의 혁신모델 ▲환경도시 ▲문화·관광도시 ▲만경강 테라시티 ▲시민중심 행정 등 7가지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밖으로는 플랫폼 도시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안으로는 모두가 누리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역설한 뒤 시민의 안정된 생활이 15분 내에 자신의 생활권역(5개 권역 20

개 생활커뮤니티)에서 가능한 15분 도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청사진을 내놨다.

이와 더불어 월드캡경기장을 짓고 운영코자 투입된 예산만큼 중소벤처기업 공유혁신단지에 투자해 운영하고, 전주한옥마을에 기울었던 정성 못 지않게 팔민어 프로젝트를 가동해 경제 성장동력을 확보, 경제 발전을 시정 최우선에 놓겠다고 강조했다.

조 전 원장은 “꼭고 사는 중심이 잡혀야 도시가 꽃을 피울 수 있는 만큼 그동안 현장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모두 녹여내겠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1만 명의 청년실업자·1천 개 리빙랩·1백 개의 혁신모델을 창출함으로써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청년들이 전주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대로 만경강 테라시티, 즉 전주, 완주, 익산을 아우르는 통합경제권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에 힘을 실었다. 관련법의 규정으로 행정구역은 통합하지 않고도 효과적인 경제통합을 이뤄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뚫을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 이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해내는 것이라면 절대 뒤지지 않는다”고 자신감을 내비치며 “골목상

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휴업을 관철시켜 독점이 아닌 상생을 시대정신으로 만들어냈듯 이번에는 오로지 시민 여러분을 믿고 거대한 진화를 위해 큰 걸음을 내딛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이어 “현실은 냉정하게 따져 묻고 행동하며 미래는 더없이 낙관하는 자세로 조지훈의 삶과 정치에서 한결같은 자세였다”면서 “민주주의, 연대, 자율, 분권, 모든 이가 누리는 문화와 복지까지 민주당의 전통과 정신을 옹골이 관철하는 혁신시장이 되겠다. 잘나가는 전주를 위해 시원하게 일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조지훈 전 원장은 전북대학교 상과대학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전주시의회 의장, 전라북도 사회정책지원센터장,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뒤 전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 김근태 재단 운영이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한편 조지훈 전 전북경진위원장이 내년 전주시장 선거에 뛰어들 것을 공식 화합으로써 타 예비 출마자들도 공식 선언 시기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오는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전주시장 선거 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유호상 기자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이 7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드론 방제로 청년 농업인 조기 정착 해결

정읍 감곡 승방틀서 드론 항공방제 연시회 농촌 일손부족 해소 계기



7일 정읍시 감곡면 승방틀에서 열린 2021청년농업인 드론 항공방제 연시회에 출석한 전북도지사,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유진섭 정읍시장 등 참석자들이 드론 항공방제 시연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전북도가 스마트한 드론 방제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과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을 한번에 해결할 예정이다.

도는 정읍시 감곡면 승방틀에서 송하진 도지사,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장, 청년 농업인 드론방제단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드론 항공방제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연시회에서는 드론방제 기술, 안전교육, 그간의 연구기술 등을 전시하고, 수도작 포장 7.933㎡에 대해 드론 항공방제 연시를 실시했다.

전북농업기술원은 청년 농업인들의 조기 정착과 농촌의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일손을 대체하기 위해 정읍시와 임실군 2개소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한 10명을 선발해 ‘청년농업인 드론 농작업지원단’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가을장마로 벼 이삭이 나온 후 병해충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긴급한 방제가

필요한 시기이며, 병해충 방제는 농촌의 고령화에 따라 가장 어려운 농작업 중의 하나이다. 이런 상황에서 드론을 활용한 방제는 신속하고 짧은 시간에 정밀한 방제를 할 수 있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어려운 농작업을 쉽게 해주는 좋은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하진 도지사는 “삼라농정 전북농업의 미래는 청년 농업인들에 있다”라며 “디지털 농업 시대 맞는 신기술이 신속히 영농현장에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전문능력을 키워나가는 청년 농

업인들을 격려했다. 전북농업기술원 관계자는 “드론 등 청년 농업인들에 장점이 있는 디지털 기술이 신속히 현장에 보급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소독화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확대 보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수 전북도의회 농산경위원장은 “고령화된 농업현장에 부족한 일손을 덜어 줄 ‘드론방제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향후 드론을 활용한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까지 확대 도입할 것을 전북도에 주문했다. /유호상 기자

2022학년도 수능, 도내 1만7280명 응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8월 19일부터 9월 3일까지 실시된 2022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 결과 전북에서 총 1만7,280명이 지원했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원서 접수 인원은 2021학년도와 비교해 124명이 증가했다. 재학생 응시자는 33명 증가한 1만3,881명이며, 졸업생은 47명 증가한 3,025명, 검정고시 응시자는 44명 증가한 394명이다.

영역별 지원 현황을 보면 국어영역 1만7,243명, 수학영역 1만6,631명, 영어영역 1만7,167명, 한국사(필수) 1만 7,280, 탐구영역 1만6,921명(사회탐구 7,993명(46.3%), 과학탐구 8,291명(48.0%), 사회·과학탐구 435명(2.5%), 직업탐구 202명(1.2%), 제2외국어/한문 1,761명(10.2%)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처음 실시하는 국어·수학영역 선택형 수능에서 전북지역 수험생

은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은 76.2%, 언어와매체’는 23.8%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수학영역은 ‘비적분’ 41.4%, ‘기하’ 6.1%, ‘확률과 통계’ 48.7%로, 자연계열 화법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비적분’, ‘기하’의 선택비율이 화법과 통계의 선택 비율과 비슷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15일까지 6개 시험지구를 대상으로 방송 및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를 토대로 10월 11일부터 22일까지 심화 점검에 나선다. /정은성 기자

도쿄올림픽 펜싱 동메달리스트

권영준 선수가 추천하는 익산탑마루 농산물

익산시

탑마루 TOP MARRU